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첫사랑 엔딩					
일시/장소	일시	2025.10.13. 월 (13:00~17:00)			장소	교내 카페
참여 인원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채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이*진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고*연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김*원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정*채 (서명)	
도서	도서명	크로이체르 소나타			저자	레프 톨스토이
	출판사	작가정신	출판연도	2019.10.22	번역자	고일
오늘의 북클럽 주제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읽고 줄거리와 느낀 점 나누기 / 작가와 소설에 대한 배경지식 나누기 / 활동 논제 선정하기					
활동 내용 & 방법						
<p>▶ 톨스토이, 『크로이체르 소나타』 줄거리</p> <p>이 소설은 주인공 ‘포즈드니세프’라는 남자가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승객들에게 자신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과 아내 살해 사건을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p> <p>남자는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낸 후 상류층 여성과 결혼한다. 그는 결혼을 성적 쾌락과 소유 관계의 연장선으로 보았고, 여성을 단순히 성적 도구로 여기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아내를 진정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못한다. 부부는 자녀를 낳지만, 육아와 삶의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불화와 오해가 쌓였고, 포즈드니세프는 아내를 향한 질투와 소유욕에 사로잡혀 그녀를 억압한다.</p> <p>그의 아내는 젊고 매력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트루하츠헬스키와 함께 베토벤의 유명한 곡인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연주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포즈드니세프는 두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며 극심한 질투에 휩싸이고, 결국 질투심을 이기지 못한 포즈드니세프는 아내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 법정에서는 정당방위 등이 참작되어 그는 자유의 몸이 되지만, 아내를 죽인 후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과 결혼 생활의 본질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고뇌한다.</p> <p>▶ 톨스토이와 『크로이체르 소나타』에 대한 배경</p> <p>- 톨스토이 개인의 사상과 삶</p> <p>부유한 백작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톨스토이는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상속받은 유산도 탕진하였던 쾌락주의자였다. 또한,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여성들과의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으며 부인인 소피아 톨스토이에겐 권위주의적 태도를 유지했다.</p> <p>그러나 말년엔 종교적, 도덕적 사상에 깊이 빠져들어 ‘금욕주의’를 극단적으로 주장하여 남녀 간의 성적 관계를 죄악시켰으며, 심지어 결혼 생활 내의 성관계조차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p> <p>- 『크로이체르 소나타』</p> <p>『크로이체르 소나타』는 톨스토이의 후기 사상이 반영된 소설이며 작가 개인의 결혼 생활에서의 고뇌, 질투, 성적 혐오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p>						

또한 이 소설은 성과 결혼 생활의 어두운 면에 대한 노골적인 접근으로 1889년 발표 당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당국에 의해 출판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읽고 느낀 점

포즈드니세프의 비뚤어진 여성관에 대한 묘사가 무척 불쾌하게 다가왔다. 포즈드니세프 아내에 대한 집착은 사랑이 아닌 소유권의 개념으로 보인다. 아내가 바이올리니스트와 교류하는 것은 남편의 소유물에 흠집을 내거나 도둑맞는 행위로 여겨지며, 이는 곧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로 간주된다.

포즈드니세프는 결혼 전후로 여성을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대상화한다. 결혼 후에도 그는 아내를 아내이자 동반자가 아닌,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유지한다. 또한 억압적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악을 즐기는 모습조차 포즈드니세프의 시선에서는 '유혹자'로서 악마적 존재로 대상화된다. 이는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여성을 '피해자'가 아니라 '유발자'로 규정하는 프레임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소설은 포즈드니세프 즉, 남편의 설명을 통해 전개되며 아내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어있다. 아내는 남편의 질투와 광기를 유발하는 존재로서 이름도 없이 '아내'로 불린다. 여기서 아내를 개별적인 인격으로 보지 않고 '아내'라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물'처럼 취급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활동 결과

▶ 활동 논제 선정하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여성관의 특징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며, 대상화, 사물화하여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인식은 아직도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여성을 타인의 욕망을 위한 대상으로 축소하고 '기능'으로서 가치를 찾는 사회의 폭력성을 다룬 영화 「서브스탠스」를 함께 보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압력에 대한 본질과 변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활동 자료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첫사랑 엔딩					
일시/장소	일시	2025.10.20. 월 (13:00~15:00)		장소	교내 카페	
참여 인원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채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이*진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고*연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김*원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정*채 (서명)	
도서	도서명	크로이체르 소나타			저자	레프 톨스토이
	출판사	작가정신	출판연도	2019.10.22	번역자	고일
오늘의 북클럽 주제	『크로이체르 소나타』 독후 활동 - 『크로이체르 소나타』와 「서브스텐스」를 관통하는 불편함에 대해서					
활동 내용 & 방법						
<p>▶ 「서브스텐스」 줄거리</p> <p>주인공 엘리자베스는 50세가 가까워지는 유명 TV 진행자이지만, 그녀의 아름다움과 젊음이 쇠퇴하자 직장 상사는 그녀를 해고하고 더 젊은 진행자로 대체하려 한다.</p> <p>엘리자베스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서브스텐스'라는 불법적인 신체 변형 물질을 사용한다. 이 물질은 사용자가 완벽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가진 제2의 자아를 갖게 해주며 엘리자베스는 젊고 아름다운 '수'로 변신한다.</p> <p>그러나 이 시스템은 두 자아가 시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수'로 사는 대중의 환호에 중독되어 시간을 초과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두 자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몸과 정체성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화학 물질에 의해 몸이 기괴하게 변형되며 파멸을 맞이한다.</p> <p>▶ 「서브스텐스」를 보고 느낀 점</p> <p>충분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가진 엘리자베스가 나이가 든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버려지는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는 '젊고 완벽한 외모'이며 이는 유통기한이 붙은 상품처럼 취급된다는 것에 환멸을 느꼈다.</p> <p>또한 주인공이 외적인 완벽함을 위해 자신의 몸에 약물을 주입하고 '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주인공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포기하고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자신을 상품화하며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비추어져 안타까움과 동시에 어리석은 행동이란 생각이 들었다.</p> <p>엘리자베스는 '수'로 살며 얻은 대중의 환호에 중독된다. 그녀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기회나 자신을 돌볼 기회를 거부하고 '수'에게 집착하는 엘리자베스를 보며 타인의 인정에 매몰되어 자신을 상실하는 모습이 현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 같아 기시감이 느껴졌다.</p> <p>엘리자베스가 화학 물질을 통해 몸을 바꾸는 과정, 두 자아의 균형이 무너지며 몸이 기괴하게 변형되는 모습은 매우 불쾌하게 다가왔다.</p>						

▶ 『크로이체르 소나타』와 「서브스틴스」를 관통하는 불편함

『크로이체르 소나타』와 「서브스틴스」를 접했을 때 느껴지는 불편하고 역한 감정의 근원은 두 작품이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가 아닌 타인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써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폭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걸모습과 역할로 환원된 여성의 가치

「서브스틴스」의 주인공 엘리자베스에게 젊음과 아름다움은 타인(사장과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시청률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그려진다. 그녀는 이미 아름다운 상태임에도 더 완벽한 상품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위해 자신의 몸에 화학 물질을 주입한다. 이는 외모가 경쟁력이자 상품인 사회에서, 여성이 스스로를 상품성 있는 소모품으로 대상화하고 생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풍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크로이체르 소나타』의 주인공 포즈드니셰프에게 아내는 정숙하고 순종적이라는 사회적 기능과 남편의 소유권을 만족시켜야 하는 도구인 것처럼 그려진다. 아내는 이름도 없이 ‘아내’라는 기능적 역할로만 존재하며, 남편의 명예와 욕구를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만 가치가 인정된다.

이처럼 두 작품 모두에서 여성의 가치는 내면적 자아가 아니라, 남성 중심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기능을 얼마나 성실히, 잘 수행하는가로 한정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두 여성은 모두 타인의 승인(인정)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희생하거나 억압하게 되며, 그로 인해 자신을 잃게 된다.

사회가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무시하고 외모나 기능으로만 평가할 때, 그 시스템 속의 개인(여성)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점에서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차원의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여성의 자기 소유권 상실과 소모에 대한 폭력적 반응

두 작품에서 모두 여성이 기능적 역할이나 소유의 틀에서 벗어나려 할 때, 시스템은 가혹하게 폭력적으로 반응한다. 『크로이체르 소나타』에서 아내가 음악을 통해 인간적인 교류를 시도하며 남편의 소유권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포즈드니셰프는 이를 배신으로 간주하고 아내를 살해한다. 이는 여성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남성이 통제권을 완전히 잃기 전에 그 소유물을 파괴함으로써 그 관계의 통제권을 영원히 보존하려는 생각에서 기인한 극단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서브스틴스」에서 또한 엘리자베스가 대중의 열렬한 환호에 중독되어 ‘수’를 유지하려 할 때, 그녀는 자신의 몸과 정체성을 모두 잃고 파멸한다. 이 같은 결말이 상품 가치가 떨어진 상품을 가차 없이 폐기 처분하는 시스템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졌다. 시스템이 엘리자베스의 몸을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찍고, 엘리자베스는 스스로 괴물이 되어 파멸함으로써, 시장 가치를 근거로 끊임없이 스스로 대상화하게 하며 자기 파멸을 유도하는 모습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활동 결과

▶ 인간의 수단화와 상품화 : 『크로이체르 소나타』와 「서브스틴스」

- 『크로이체르 소나타』와 「서브스틴스」가 공유하는 문제의식

두 작품 모두 여성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이 아닌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능으로서 묘사한다. 「서브스틴스」에서는 자본으로서의 외모 상품화를 조명한다. 엘리자베스는 젊고 아름다운 외모 자체가 상품이자 자본인 시스템 안에서 존재한다. 나이가 들자 회사는 그녀를 가차 없이 대체하려 하고, 이는 개인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닌 외모가 생존을 결정하는 사회 시스템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그녀가 대중의 인정을 얻기 위해 ‘수’를 만들고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모습은, 자발적인 자기 대상화가 어떻게 비극적인 자기 파멸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크로이체르 소나타』는 여성에게 강요되는 소유물로서의 역할을 조명한다. 포즈드니셰프에게 아내는 정숙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며 남편의 명예욕과 소유욕을 충족시켜야 하는 도구로서 존재한다. 그녀의 정체성은 억압된 채 ‘아내’라는 특정 역할로만 한정되며, 그녀가 인간적인 교류를 시도한 때 남편의 소유권 폭력이 극단적인 살인으로까지 변진다.

이 두 작품은 여성을 남성 욕망의 기능이나 시장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사회적 시선을 노골적

으로 드러내며,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 칸트의 정언 명령: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구조적 강요_현대 사회는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노동, 외모, 감정까지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가치로 측정하며, 인간을 수단화할 때 생존이 유리하다는 논리를 학습 시킨다. 이러한 구조적 압력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암묵적으로 자신을 상품화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면서 살아간다.

인정 욕구_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서브스틴스」의 엘리자베스처럼, 자기 본질적 가치를 인지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외부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불안정한 인정을 얻으려 한다. 이는 결국 스스로를 타인의 욕망에 종속시키는 수단화로 이어진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자기만족이라는 명분과 무언의 상품화 요구 사이에 놓여있는 현실은, 이 딜레마가 현재의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품화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도덕적 결함 때문이라기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끊임없이 침해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과 인간이 가진 인정 욕구, 그 인정 욕구를 자극하는 사회 인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적 개혁이나 사회적 인식은 단시간에 바뀌기 힘들다. 때문에 나에게 가해지는 무언의 상품화 요구에 저항하고 '자기만족'과 상품화 요구를 명확히 구분하며, 타인의 인정이나 환호보다 스스로가 정한 가치 기준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활동 자료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첫사랑 엔딩					
일시/장소	일시	2025.10.27. 월 (14:00~19:00)			장소	비대면
참여 인원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채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이*진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고*연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김*원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정*채 (서명)	
도서	도서명	중단편선 1			저자	레프 톨스토이
	출판사	작가정신	출판연도	2010.04.07	번역자	김성일
오늘의 북클럽 주제	톨스토이 중단편선 1 中『가정의 행복』을 읽고 줄거리와 느낀 점 나누기 / 소설에 대한 배경지식 나누기 / 활동 논제 선정하기					
활동 내용 & 방법						
<p>▶ 톨스토이, 『가정의 행복』 줄거리</p> <p>이 소설은 주인공 ‘마샤’라는 젊은 여성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그 과정에서의 사랑의 변질 및 성숙을 1인칭 시점으로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p> <p>화자는 시골 영지에서 고독하게 지내던 중, 오랜 친구이자 연장자인 후견인 세르게이 미하일리치와 결혼한다. 마샤는 이 결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으나, 결혼 후 남편이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태도와 걱정이 부재한 평온한 삶으로 인해 결혼 두 달 만에 권태와 공허함을 느낀다. 그녀는 괴로움 속에서 남편의 가르침과 소박한 시골 생활을 의심하기 시작한다.</p> <p>부부는 마샤의 고통으로 인해 도시인 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하고, 마샤는 화려한 사교계에 빠져들며 외적인 인정과 칭찬을 추구한다. 남편은 아내의 가식적이고 천박한 사교계 활동에 상처받고 냉담하게 멀어지며, 부부의 관계는 소원해진다. 이 시기에 마샤는 외국 여행 중 만난 D 후작의 끈질긴 유혹에 흔들리는데, 이는 그녀가 잃어버린 순수한 사랑의 열정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심리와 연결된다.</p> <p>마샤는 결국 D 후작의 유혹에서 도망쳐 나와 남편에게 자신의 모든 불안과 유혹을 고백하고, 남편의 격렬한 질투를 기대한다. 그러나 남편은 극도의 냉정함으로 그녀의 고백을 막고, 그녀가 겪은 소동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며 상황을 정리해 버린다. 마샤는 이 냉담함 속에서 과거의 열정적인 사랑이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로맨틱한 애정은 종결되었음을 받아들인다. 두 사람은 시골로 돌아와 과거의 감정을 되찾으려 하기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부모로서의 동지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성숙하고 평온한 가정의 행복을 발견하며 이야기가 마무리 된다.</p> <p>▶ 톨스토이 『가정의 행복』에 대한 배경</p> <p>『가정의 행복』은 톨스토이의 결혼 이전에 집필되었으나 이후 그의 실제 결혼 생활을 예견하는 듯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소설 속 주인공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마샤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마샤의 후견인 같은 위치에서 관계가 시작된다. 이는 톨스토이가 실제 아내 소피아 베르스와 결혼했을 때, 그들 사이에 있던 나이 차이 등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톨스토이의 결혼 생활 역시 소설처럼 초기의 낭만적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생활의 권태와 갈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었다. 소설은 그가 결혼을 앞두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느꼈던 불안감을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p>또한 가정의 행복은 톨스토이의 초기 여성관이 잘 드러난 소설이다. 소설이 쓰여진 시기의 톨스토이는 여성</p>						

의 역할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그는 여성이 사교계나 지적인 활동보다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가정 내 역할에 충실할 때 가장 완전한 행복을 얻는다고 보았다. 이에 세르게이를 통해 농촌노동, 독서, 음악, 가족애 등이 결합된 조용하고 선량한 삶을 이상화하며, 사랑의 과도한 열정이 오히려 파괴적일 수 있다는 논쟁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마샤가 행복을 찾아 헤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교계는 당시 러시아 상류층을 대변한다. 당시 상류층은 겉으로는 엄격한 도덕규범을 지키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위선과 가십, 은밀한 불륜이 만연했다. 때문에 톨스토이는 사교계의 관계를 가짜 행복의 원천이자 진정한 사랑을 해치는 부도덕한 장소로 묘사했다. 또한 상류층의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재산과 사회적 지위의 결합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했다. 마샤가 느꼈던 권태는 낭만적 사랑으로 충족될 수 없는 상류층의 결혼을 비판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안나 카레니나』나 『전쟁과 평화』 같은 대작 이전에 쓰인 소설로, 톨스토이 사상의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다. 이 소설은 이후에 쓰인 그의 작품들처럼 복잡하고 방대한 인간군상을 다루기보다는 가정의 윤리에 대한 명확하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며, 남녀의 사랑이 겪는 필연적 네 단계 과정인 환희와 열정, 결혼의 안정과 친밀, 권태와 일탈, 이해와 성숙한 교감을 제시한다. 또한 작품에서 마샤가 경험하는 권태와 사교계의 유혹, 그리고 이를 극복한 뒤 가족애를 통한 새로운 행복 발견이라는 결말은, 개인의 감정적 성장과 결혼의 성숙을 강조하는 톨스토이의 시각을 드러낸다.

▶ 『가정의 행복』을 읽고 느낀 점

이 소설을 읽으며 우리는 마샤의 미성숙한 행동과 세르게이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강한 불평을 느꼈다. 마샤는 결혼 초의 평온하고 진실된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정의 고양감과 극적인 사건을 갈망하며 사교계로 뛰어든다. 남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보여주는 어리석은 모습들은 어린 나이에서 비롯된 판단력 부족을 드러내며 독자로 하여금 짜증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한편 세르게이는 마샤를 사랑하고 인정하면서도 그녀가 겪을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배우자로서 보호하거나 이끌지 못한 채 관찰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 이 점에서 그의 성숙함은 존경을 이끌어 내기도 했지만, 마샤의 무너짐을 지켜보기만 한 차갑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느껴졌다.

특히 인물들의 일탈과 상처를 촉발시키는 19세기 러시아 사교계의 모습은 가장 강렬한 문제의식으로 다가왔다. 러시아 사교계 속 모습은 겉보기에는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실상은 노동과 생산이 없는 무의미한 공간에 가깝고,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연대가 아니라 시선·비교·칭찬이라는 거래 위에 놓여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은 쉽게 공허해지고, 삶은 권태와 무기력으로 흘러가며, 인간관계는 깊이를 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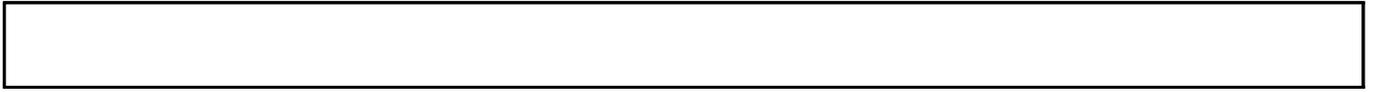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느꼈다. 마샤가 고통 끝에 시골로 돌아와 삶과 관계의 '실재'를 다시 붙잡으려는 결말은, 소비와 유희의 세계를 떠나 노동과 연대, 책임이 있는 삶으로 회귀하려는 몸부림처럼 읽힌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야 비로소 성장과 회복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작품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고 느꼈다.

활동 결과

▶ 활동 논제 선정하기

소설 속 19세기 러시아 귀족 사교계는 마샤에게 외적 쾌락과 허영을 제공한다. 그러나 남편 세르게이는 이를 '불결함', '태평함', '어리석음'으로 규정하며 진정한 삶을 파괴하는 공간으로 비판하고 실제 사교계는 마샤의 삶을 파괴하는 공간으로서 작용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교계의 구조는 개인의 내면을 어떻게 공허하게 만들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파괴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하기로 하였다.

활동 자료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첫사랑 엔딩					
일시/장소	일시	2025.11.03. 월 (13:00~15:00)		장소	교내 카페	
참여 인원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채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이*진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고*연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김*원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정*채 (서명)	
도서	도서명	중단편선 1			저자	레프 톨스토이
	출판사	작가정신	출판연도	2010.04.07	번역자	김성일
오늘의 북클럽 주제	『가정의 행복』 독후 활동 - 개인이 내면을 공허하게 만드는 메커니즘					
활동 내용 & 방법						
<p>▶ 개인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드는 19세기 사교계</p> <p>- 외부 평가에 종속된 자아</p> <p>사교계의 본질은 ‘보여주기’와 ‘평가받기’이다. 소설 속에서 마샤는 자신의 가치를 내면의 충실함이나 가정에서의 성취가 아닌, 무도회에서의 찬사, 옷차림 등 외부의 일시적인 반응에서 찾으려 한다. 이같이 사교계는 끊임없이 타인의 눈을 의식하게 만들고, 마샤는 진정한 자존감의 원천인 내면의 목소리를 잃고 외부 시선에 종속된다. 화려하게 꾸미는 사회적 가면이 커질수록, 가면 뒤에 가려진 본래의 자아가 소외되고 위축되어 공허함을 느낀다. 이는 톨스토이가 ‘가식’이라고 규정하는 상류 사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p> <p>- 관계의 피상성과 고립</p> <p>사교계는 많은 사람들로 복잡하지만, 그 관계는 깊은 교감이 없는 얇은 관계이다. 사교계의 대화는 가십, 의례적인 칭찬, 가벼운 농담 등 표면적인 대화로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교감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인사치레에 가깝다. 마샤는 얇은 관계에 몰두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관계인 남편 세르게이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훼손시킨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면서 느끼는 균중 속의 외로움은 내면의 공허함으로 이어진다.</p> <p>- 자극 과잉과 소진</p> <p>사교계를 방황하며 마샤는 매일 새로운 흥분과 도취감을 느끼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행복이 아니라 정신적인 소진을 초래한다. 파티, 무도회 같은 강한 외부 자극에 익숙해지면, 일상의 소박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지루하고 따분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p> <p>사교계의 쾌락은 일시적이다. 만족감은 잠시뿐이며, 곧바로 더 강하고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게 된다. 이처럼 끝없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해야 하는 허망한 욕망의 순환 속에서 개인의 내면은 점점 소진된다.</p> <p>▶ 현대판 사교계: 소셜미디어</p> <p>- 외적 기준에 종속된 자아</p>						

사람들은 SNS에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전시하고, '좋아요'와 '팔로워 수'라는 디지털 찬사를 통해 자존감을 형성한다. 비싼 음식과 사치품, 완벽한 외모 등이 끊임없이 피드에 올라오며, 개인은 끊임없는 타인과의 비교 우위 경쟁에 놓인다. 이처럼 개인의 가치는 내면의 충족이 아닌 디지털 평가 지표에 종속된다. 이는 현실과 괴리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강박을 낳아 자아의 공허함을 심화시킨다.

- 관계의 피상성

SNS의 '친구'나 '인맥'은 양적으로는 많지만, 대부분은 실질적인 감정 교류가 없는 피상적인 관계이다.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고민을 나누기보다 소위 '잘나가는 모습'만 공유하며 정서적 고립감을 느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고립된 개인이 진정한 친밀감과 신뢰를 맺는 것을 방해하며, 군중 속의 외로움을 유발한다.

- 끝없는 자극 추구

숏폼 콘텐츠나 자극적인 미디어 콘텐츠 등은 뇌에 빠르고 강한 도파민 자극을 제공한다. 마사가 조용하고 의미 있는 가정생활에 지루함을 느꼈듯이, 현대인들은 노력이 필요한 지속적인 가치를 지루함으로 치부하고, 순간적인 쾌락만을 추구한다. 이는 '책임과 의무'라는 삶의 기반을 파괴한다.

활동 결과

▶ 19세기 사교계와 현대의 SNS, 개인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드는 메커니즘

- 외부 기준에 종속된 자아

메커니즘	19세기 사교계(『가정의 행복』의 마샤)	소셜미디어
가치 기준	- 무도회에서의 찬사, 드레스의 화려함 등 타인의 구두 평가	- 좋아요, 팔로워 수, 댓글 등 디지털 지표
공허함 유발	- 사교계 속 마샤는 외부의 일시적 박수와 지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녀의 삶에 공허함을 유발함.	- SNS 사용자는 자신의 삶이 디지털 승인을 받아야만 의미 있다고 여기며, 현실과 다른 이상적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내면이 소진되고, 자신의 자아와 온라인 페르소나 사이의 괴리가 커지며 공허함을 느낌.
결과	- 허영심의 극대화	- 주목 경제(Attention Economy)에 중독

- 관계의 피상성과 고립

메커니즘	19세기 사교계(『가정의 행복』의 마샤)	소셜미디어
관계의 성격	- 목적 지향적(결혼, 인맥 구축, 가십 공유 등)이며 얕고 가식적임.	- 네트워크 지향적(많은 '친구'와 '팔로워')이지만, 대부분 일반적 관찰자 관계에 머물.
공허함 유발	- 마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정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지 못해 고립감을 느꼈고, 남편과의 핵심적인 친밀감까지 훼손됨.	- 사용자는 수백, 수천 명의 팔로워를 가질 수 있지만, 깊은 대화와 신뢰가 부족한 '가짜 친밀감'을 경험함.
결과	- 군중 속의 외로움	- 정서적 고립감의 심화

- 진정한 삶의 가치 파괴

메커니즘	19세기 사교계(『가정의 행복』의 마사)	소셜미디어
파괴 요소	- 무도회와 파티 등 강한 외적 자극	- 슛폼 콘텐츠, 새로운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알림 등 도파민을 자극하는 즉각적인 보상
공허함 유발	- 마사는 이 자극에 중독되어 지속적이고 노력이 필요한 일상적인 가치들을 지루하고 따분한 것으로 여김.	- 현대인은 즉각적인 쾌락에 익숙해져, 인내와 헌신이 필요한 장기적인 가치를 쉽게 포기하거나 외면함.
결과	- 의무와 헌신 상실	- 인생의 지속 가능한 의미 상실

▶ 내 삶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노력

톨스토이가 비판했던 19세기 사교계의 ‘허영’은 현대에 와서 SNS의 전시 문화로 이어졌다. 두 공간 모두 개인의 시선을 내부에서 외부로 돌려 내면의 공허함을 낳고, 결국 개인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내 삶의 기반을 단단히 지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 보았다.

- 내적 기준 확립과 자아 보호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 가치관, 목표를 성찰하여 내적 기준을 확고히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 자극에서 일정 부분 분리되는 연습도 필수적이다. ‘디지털 경계’를 설정하고, 외적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즉각적 도파민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관계의 질적 강화

피상적인 온라인 관계보다 가족, 친구 등 내 삶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관계에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 일상의 의미 회복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상 활동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소비나 쾌락보다, 취미 활동이나 독서, 운동, 교육 등 장기적으로 삶에 의미를 쌓아가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톨스토이가 제시한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에 있음을 깨닫고, 단기적 쾌락이 아닌 삶의 기반을 단단히 만드는 장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활동 자료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첫사랑 엔딩					
일시/장소	일시	2025.11.10. 월 (13:00~20:00)		장소	비대면	
참여 인원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재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이*진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고*연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김*원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정*재 (서명)	
도서	도서명	수레바퀴 아래서			저자	헤르만 헤세
	출판사	민음사	출판연도	2001.08.10	번역자	김이섭
오늘의 북클럽 주제	『수레바퀴 아래서』을 읽고 줄거리 이야기하기 / 소설에 대한 배경지식 나누기 / 활동 논제 선정하기					
활동 내용 & 방법						
<p>▶ 헤르만 헤세, 『수레바퀴 아래서』 줄거리</p> <p>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는 총명한 머리로 주변의 기대를 받는다. 그는 자연을 사랑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소년이었으나, 아버지와 학교의 기대와 강요로 마울브론 기숙신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모든 취미와 개인적인 감정을 억압당한다. 한스는 신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며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만, 이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약해진다.</p> <p>신학교에서 한스는 '헤르만 하일러'라는 친구를 만난다. 하일러는 자유분방하고 기존 권위에 반항하는 기질을 가진 인물로, 획일적인 학교 규율에 적응하지 못한다. 한스는 하일러에게 깊은 우정을 느끼고 그의 영향으로 잠시나마 억압된 생활에서 벗어나 자아를 찾으려 하지만, 하일러는 곧 학교를 떠나게 된다.</p> <p>친구의 부재와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내면적 갈등으로 한스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p> <p>고향으로 돌아온 한스는 사람들의 조롱과 실망 섞인 시선을 받으며 더욱 고립된다. 그는 잠시 시계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시절 친구 프리드리히와 재회하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지만,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채 자신의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하지 못한다.</p> <p>고향에서 만난 소녀 엠마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엠마는 한스를 떠나고 한스는 사랑의 아픔까지 겪게 된다. 깊은 절망감과 허무함 속에서 한스는 술에 취해 강물에 빠져 생을 마감한다.</p> <p>▶ 헤르만 헤세와 『수레바퀴 아래서』의 배경</p> <p>-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배경</p> <p>『수레바퀴 아래서』는 헤르만 헤세가 1906년 발표한 작품으로, 작가 본인의 청소년기 경험이 강하게 반영된 자전적 소설이다. 헤세는 목사인 아버지와 신학자 가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14세에 명문 개신교 신학교인 마울브론 기숙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억압적인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1년 만에 도망쳐 나왔다.</p> <p>중퇴 당시 헤세는 부적응과 신경쇠약을 겪었으며, “시인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자살 시도와 정신요양원 생활, 시계 부품 공장 견습공 생활 등을 전전했다.</p>						

- 『수레바퀴 아래서』

『수레바퀴 아래서』는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사회에 적응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그리는 전통적인 성장소설의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 대신, 한스가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려다 오히려 파멸하는 과정을 통해 제도권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비판하는 반성장 소설로서, 사회 제도와 환경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소설이다.

이 작품 이후 『데미안』으로 이어지는 헤르만 헤세의 문학을 관통하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가장 비극적인 결말로 보여준 헤세의 초기 작품이다.

- 19세기 말 독일의 시대적 배경과 교육 환경

독일은 통일 이후 강력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세계 열강으로 발돋움하려 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군국주의적 가치가 팽배하여, 질서, 복종, 위계질서, 국가에 대한 헌신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다.

이 같이 억압적인 시대적 분위기는 교육 시스템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국가에 봉사할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관료와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하였으며, 학생들의 개성, 감수성, 비판적 사고는 질서와 복종을 해치는 요소로 간주 되어 억압되었다. 또한 한스가 겪었듯이, 소수의 명문 신학교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특히, 기숙학교는 군대와 유사한 엄격한 규율과 통제 속에서 운영되었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극심한 정신적 압박과 모멸감을 주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학생의 재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와 학교의 자원으로 보았기에, 학생들의 고통은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교육 환경과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많은 청소년에게 신경쇠약을 일으켰으며, 학생들의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활동 결과

▶ 활동 주제 선정하기

소설에서 '수레바퀴(Rad)'는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공과 출세라는 획일적인 목표만을 강요하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과 교육 제도를 상징한다. 또한 소설에서 나타난 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개인의 개성을 짓밟는 억압적 교육 제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립과 관계 단절, 정형화된 성공을 강요하는 사회적 시선이었다. 이 같은 문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수레바퀴, 수레바퀴 안의 사람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활동 자료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첫사랑 엔딩					
일시/장소	일시	2025.11.17. 월 (15:00~17:00)			장소	캠퍼스 라이프 센터
참여 인원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채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이*진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고*연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5****	이름	김*원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정*채 (서명)	
도서	도서명	수레바퀴 아래서			저자	헤르만 헤세
	출판사	민음사	출판연도	2001.08.10	번역자	김이섭
오늘의 북클럽 주제	『수레바퀴 아래서』 독후 활동 - 한국 사회의 수레바퀴, 수레바퀴 안의 사람들					
활동 내용 & 방법						
<p>▶ 소설 속에서 ‘수레바퀴’의 의미</p> <p>‘수레바퀴’는 한스라는 개인의 개성과 영혼을 짓밟고 파괴하는 거대한 힘 또는 시스템을 상징한다고 해석된다.</p> <p>- 억압적인 교육 제도와 획일적인 평가</p> <p>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짓밟는 억압적 교육 제도와 재능을 시험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방식이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직접적인 수레바퀴로 보여진다.</p> <p>- 정형화된 성공 강요와 타인에 의한 가치 부여</p> <p>특정 방향의 삶을 강요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시선도 수레바퀴로 대변된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이 설정한 절대적 가치, 성적과 명예라는 조건부의 관심, 정형화된 목표에서 벗어난 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시선과 태도 또한 수레바퀴로 볼 수 있다.</p> <p>- 고립과 단절을 초래하는 경쟁 체제</p> <p>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친구를 경쟁자이자 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하며, 진정한 유대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회 환경, 고립을 심화시키는 경쟁 구조도 소설 속에서 나타난 수레바퀴라고 생각했다.</p>						
활동 결과						
<p>▶ ‘수레바퀴’ 아래서</p> <p>『수레바퀴 아래서』를 읽은 후, 팀원들은 소설 속 억압적 교육 제도, 극심한 고립, 그리고 정형화된 성공을 강요하는 사회적 시선이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음을 공감했다. 특히, 한국 교육 현실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 수업 외에 사교육까지 병행하며 입시 중심·결과주의적 학습 환경에 놓여있다는 점, 그</p>						

리고 학교가 성적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통해 재능을 판단하고 상대평가 경쟁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 사이의 고립과 관계 단절을 초래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더 나아가, 한스 주변 인물들이 성적과 명예에 따라 관심을 달리하며 그의 존재 자체에는 무관심했던 점이 '성적이 좋을 때만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왜곡된 자아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것이 결국 한스의 절망을 극단으로 몰고 간 핵심 원인이라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에서도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을 포함한 다양한 면들을 자세히 검토하며, 우리 사회의 '수레바퀴' 아래서 되풀이되는 근본적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을 느꼈다.

수레바퀴 아래서의 비극은 교육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지도하는 사람과 교육을 받는 사람 모두의 약함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을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와 엮어 살펴보자.

니체의 관점에서 볼 때 한스를 파멸시킨 것은 신학교라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도에 깃든 '수재', '신학교 합격', '성공'이라는 타인의 가치에 대한 한스의 맹목적 순응이었다. 니체는 자신을 옹아매는 기존 가치를 '중력'에 비유했다. 중력은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기에, 우리는 이 중력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 가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힘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힘은 우리가 기존 가치를 재평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때 생겨난다. 니체가 말한 중력처럼 기존 가치들은 한스의 영혼을 짓누르며, 그가 자신의 욕망과 감성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았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재평가하려는 능동적 힘을 잃어버렸다. 또한 니체에게 가치의 투쟁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내면을 향한 힘에의 의지의 발현이나, 한스는 가치 경쟁에서 패했다고 느꼈을 때 자신의 실패를 존재론적 절망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비하했을 뿐이었다. 그는 니체가 말한 것처럼 패배를 계기로 상대의 가치를 긍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스가 비극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비판한 부분들을 개선한 개념인 '힘에의 의지'를 통해 기존 가치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결국 수레바퀴 아래서는 타인이 설정한 가치를 절대화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니체 철학의 강력한 사례이며, 한스의 비극은 우리에게 남의 가치에 지배당하지 말고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니체의 준엄한 명령처럼 다가온다.

활동 자료

--